

‘다 늙어 한글 깨칠 수 있으니 아주 기뻐요’

익산행복학교 춘포 원쌍정마을서 개강 16명 어르신들 12월까지 한글 등 배워

배움의 시기를 놓쳐 한글을 미처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인 익산행복학교 춘포원의 첫 수업이 지난 2일 춘포면 원쌍정마을에서 열렸다.

16명의 어르신들은 오는 12월까지 한글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수, 알파벳, 초등학교 과정 미술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날 개강식에서 김포(80세) 할머니는 “예전부터 한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배움의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 열심히 배우서 주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행복학교 춘포원은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 속에 문을 열었다. 원쌍정마을은 어르신들의 공부를 위해 화이트보드 등을 지원했다.

한편 합영읍 남산면, 여산면, 금마면 등산장에서 운영 중인 시 직영 문해교육사업인 찾아가는 ‘익산행복학교(어르신 한글교실)’는 올해 10개에서 12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인 익산행복학교 춘포원의 첫 수업이 지난 2일 춘포면 원쌍정마을에서 열렸다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등 교육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학습수요자가 5명~10명 정도 되면 수시로 개설 /익산=장양원 기자

올해도 대강면 다녀간 얼굴 없는 ‘백미 천사’

면사무소에 100포대 배달... 5년 동안 지속

남원시 대강면에서는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얼굴 없는 백미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갔다.

지난 1일 오후 대강면사무소에 쌀 100포대(20kg/포, 시가 350만원 상당)가 배달되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보내온 것이다.

면사무소로 배달된 얼굴 없는 백미 천사의 사랑의 쌀은 2012년 익명으로 기부되기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5년 동안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류장기 대강면장은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조용히 돕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분의 도움으로 올해도 훈훈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어 고마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오수로타리클럽, 100여 개 경로당 찾아 과일 전달

임실군 오수로타리클럽(회장 최기락)이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면 관계자에 따르면, 오수로타리클럽 회원들은 2일 오수, 삼계, 지사면 소재 100여개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에게 감귤, 사과 등 총 200여 만원 상당의 과일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최기락 회장은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6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오수로타리클럽은 10여년 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연탄 배달과 쌀 기증행사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정을 실천해 오고 있다. /임실=전종영 기자



전주해바라기타리클럽, 필리핀 어린이에 의류 선물

전주해바라기타리클럽(회장 최현숙)이 필리핀 나후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의류 2800점(60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세상에 선물이 되자’는 로타리클럽 정신 실천을 위해 해바라기 로타리클럽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해 의류를 지원했다.

전주해바라기타리클럽은 지난 2002년 창립해 현재 7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

사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중증장애인시설 목욕봉사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노인복지센터에 쌀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번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의류 지원은 전 클럽회원 박연숙 성실섬유 대표 부부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장은 설명절에 앞서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2일 소하진달래집, 한사랑지역아동센터, 다사랑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하여 따뜻한 정과 함께 쌀, 고구마 등 위문품(100만 원 상당)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은 설을 앞두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했다.

박 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오는 4일까지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연이어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전북지방 방문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이 2일 초도순시 및 업무 보고를 위해 전북도지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채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시년 4대 핵심 사업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질병예방 △건강검진 전 분야의 품질관리 강화 △사회공헌활동의 확대 △제5군 감염병 예방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용주 기자



완산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논의 간담회

완산동 주민센터(동장 김길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중태)에서는 2일 프로그램 임원진과 감사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활동사항 보고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가교실 프로그램 최정자(74세) 회장은 “주민센터에서 운동도 배우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김중태 주민자치위원장은 “회원들이 각종 발표회 및 전시회에 참여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올해도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서, 4대 사회악 근절·아동학대 예방 간담회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가 4대 사회악 근절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덕진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이주영)과 4대 사회악 척결 실무자들은 2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장 함미화),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원진)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원진 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아동학대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노영기자



군산시에 설 명절 맞아 성금과 성품 이어져

군장에너지 쌀250포 · 한돈협 돼지고기 800kg · 한우협 100만원

군산시에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과 성품이 잇따라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일 소용동 소재 ㈜군장에너지(대표 박준영)는 관내 저소득층에 사용해 달라져 쌀10kg 150포대를, 인근 미성동에 100포대 등 총250포대(환가액 5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군장에너지는 매년 추수와 설 명절에 소용동 및 미성동에 쌀을 기탁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어 기업의 나눔 문화 활동에 귀감이 되고 있는 회사이다.

이날 대한한돈협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현섭)에서도 무료급식소, 복지관과 같은 어려운 시설을 위해 돼지고기 800kg(400만원 상당)을, 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지부장 정운섭)는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한돈협회·한우협회 군산시지부는 해마다 명절이면 잊지 않고 기탁을 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에 기탁된 성금·품을 읍면동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잊지 않고 찾아주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 시도 더불어 잘사는 지역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금암2동 미르밀육류관, 독거노인 50여명 초청 갈비탕 대접

금암2동 미르밀육류관에서는 2일 관내 독거노인 50여명을 초청해 갈비탕을 대접했다.

순춘섭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새해를 맞아 따뜻한 갈비탕을 준비했다”면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완산경찰서, 법학전문대학원생 실습 지원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2일 완산경찰서로 실습 나온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 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경찰서 실습은 경찰실무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을 통해 법집행절차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김모씨(32세)는 “경찰인문에 뜻이 있어 경찰서 실습에 기대가 크고,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노영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월간)
등록번호: 전라 가00016 (우)150-92 전주স্থাপন গারান 222 48 (서노688)

부회장 서재철 발행·편집인 김동만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95-418	중원지사 010-8088-6074	남원지사 632-3986	고흥지사 580-6889
삼정지사 010-2333-491	송전지사 248-8855	김제지사 570-8855	임실지사 010-9942-2725
서신지사 272-9477	완주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8-6655	진안지사 433-3084
홍주지사 010-9895-9635	부안지사 858-4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30-4250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